

1.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나의 생각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복잡한 정세로 얽혀져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도발에다 미·중 간의 한반도를 둘러싼 힘겨루기 싸움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직접 당사자들인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뭉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중일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쟁들은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역사적 갈등이 분쟁의 주요 내용이 되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었을 때에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왔지만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을 대화를 통해서 하루 빨리 해결해야 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공동체의 유지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면 공동체의 내부적인 결속이 흐트러져 공동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갈등이 지속되면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고 아시아공동체 안에서 공유하는 이념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구성했을 때에는 이해관계의 변화에 의해 공동체의 위기가 빠르게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간에 공유하는 이념이 존재하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면 이해관계가 변화하더라도 공동체를 오래도록 유지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공동체안에서 공유될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아시아 구성 국가들간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양보를 통해서 만들어 내야한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공동체가 형성된다면 필연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 하게 되는데 다른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이러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중국 한 국가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고 이를 견제할 국가가 없다면 아시아 공동체가 중국과 같은 한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아시아 공동체 안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국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성장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는 저성장,고령화 등 일본이 겪었던 여러 경제,사회문제들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기존에 교류가 적었던 국가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지지를 받도록 지지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안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계 우수국가들로 진출하여 전문을 넓히고 열려있는 생각을 가지며 많은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국가적 지원이 합쳐진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중국과 일본에 버금가는 강대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아시아 공동체론을 들은 소감

이번에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을 들으면서 아시아가 하나로 뭉치는 것의 중요성과 아시아 공동체가 성립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 등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여러 강사분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국과 아시아 각국 간의 관계에 대해 나만의 관점 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의 관점을 들을 수 있었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나의 견문과 시야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많은 강사분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신범철 강사님의 한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과 11월 1일에 있었던 고령화 시대의 한일경제협력을 주제로한 국제 컨퍼런스가 기억에 남는다 신범철 강사님의 강연은 평소에 시사에 관심이 있었던 나에게 한국이 현재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신범철 교수님의 강연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이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에게 소홀히 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렇기에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공고히 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있었던 국제컨퍼런스는 한일간에 정치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교류는 끈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과 관료분들이 참여하신 세미나여서 더욱 기억에 많이 남았고 평소에 뵙기 힘든 저명한 학자분들의 한일관계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발전해야 할 방향 등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의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성 주계관이 직접 한국의 대학까지 와서 강연을 하는 것을 보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비중을 높게 두는 나라라고 느낄 수 있어서 현재 일본정부의 대외적인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이러한 심도 있는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생활에서 매우 소중한 경험이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강의내용이 한일 관계에 다소 치우쳐진 강연이 많았다고 느껴졌다. 한일간의 경제협력,역사,문화 등에 대해서는 다루어졌지만 중국과 북한등 주변 당사국들에 대한 강연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또한 최근 상대적으로 부상하고 있어 외교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강연도 적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내년에도 강의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과 중국,일본 이외에 중앙아시아나, 서남아시아 등 타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 전문가나 현지 전문가를 통한 강연이 첨가가 된다면 더 심도있고 심층적인 아시아공동체론 강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